

일부 군인의 흡연실태와 구강건강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전미진 · 황선희¹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 ¹신구대학 치위생과

색인 : 구강건강지식, 군인, 실천, 태도, 흡연

1. 서론

건강증진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다루기 위해 신중하게 고안된 모든 방법을 통합한다. 건강증진의 주요 특징은 입법, 재정적, 경제적, 환경공학의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정책(Health Public Policy)이 바로 그것이다¹⁾. 이는 학교사업장과 같은 지역사회가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건강관리비용의 상승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자신의 안녕수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건강증진행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²⁾.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람의 건강행위를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금연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질환에는 호흡기 질환, 관상동맥 질환, 임신에 따르는 각종 합병증, 소화성 궤양 등이 있으며³⁾, 각종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흡연자에게서 전신질환 뿐만 아니라 구강증상 및 질환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⁴⁾. 또한 흡연자에게서 구강암, 구취, 구강건조증, 치아변색, 치아상실, 골의 파괴, 미각상실, 치주치료 성공률의 저하, 치과용 임플란트의 실패,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⁵⁾.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흡연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흡연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⁶⁾. 그리고 전국 흡연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경우 1988년에 23.9%, 1991년 32.4%, 1995년 30.2%, 1997년 35.5%, 1999년 32.6%로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⁷⁾, 20세가 넘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70%이상의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⁸⁾.

한편 청소년기를 지난 우리나라 청년은 병역의 의무상 성년 초기에 대부분 군에 입대를 한다. 군에 입대한 병사들 중 흡연을 했던 병사들은 군에 와서도 자연스레 흡연을 하게 되고, 병영생활 특

성상 경험하지 못했던 통제적인 공동생활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⁹⁾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흡연은 장병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즉각적인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저하시키고, 군사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¹⁰⁾전군인들의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 유지와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우리나라 사회기반 초석이 될 국군병사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에 위해를 주고 있는 병영 내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구강건강지식과 태도를 포함한 실천행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군내에서 필요한 흡연 예방분야의 구강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장병들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전투부대 2곳의 311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요원 1명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회수된 총 311부 중 결측치 10부를 제외한 301를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흡연실태 및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학력, 군내음주유무, 군복무 만족도로 구성하였으며, 흡연실태는 흡연유무, 니코틴 의존도, 일일 흡연량, 총 흡연기간, 흡연시작시기, 흡연동기, 담배연기처

리, 금연시도, 친한동료의 흡연유무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강건강과 관련하여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구취, 잇몸출혈) 및 구강건강중요도 비중 인지, 구강보건교육 요구도로 구성하였다.

2.2.2. 구강건강지식 측정도구

구강건강지식 측정도구는 윤¹¹⁾등과 류¹²⁾등의 설문도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취식 후 잇솔질인지, 무설탕 음식, 불소수돗물, 불소배합세치제, 치주병 예방을 위한 취식 후 잇솔질, 주기적인 잇솔질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 Scale 4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2.3. 구강건강태도 측정도구

구강건강태도 측정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설탕배합섭취,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취식 후 잇솔질, 불소배합세치제 사용, 수돗물불소화, 치주병예방을 위한 잇솔질, 치면세마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 Scale 4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2.4. 구강건강실천 측정도구

구강건강실천 측정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영역으로는 구강건강태도로 구성된 설문항목 6항목과 정기검진, 치료경험, 정기적치료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 Scale 3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검진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구도구는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수별 신뢰도는 구강건강지식은 0.885, 태도는 0.794, 실천은 0.879 이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흡연실태와 구강건강 중요성 인지 및 구강보건교육 요구정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흡연실태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와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흡연실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하위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흡연실태와 구강건강지식, 실천 및 태도와의 상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은 20세 미만이 86.4%, 20세 이상은 13.6%, 최종학력은 무학 1.7%, 초등학교 1.0%, 중학교 23.3%, 대학교 이상이 48.2%이었다. 군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21.9%, 보통이 37.9%, 불만족은 40.2%이었고, 군내음주는 함이 6.6%, 안함 93.4%이었다<표 1>.

3.2. 연구대상자들의 흡연실태

연구대상자의 흡연실태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흡연유무에서는 ‘흡연자’가 75.4%이었고, 니코틴 의존도는 43.9%가 ‘보통’으로 나타났다. 일일흡연량은 ‘10 개비’ 미만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기간은 ‘2년 미만’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습관적인 흡연시작시기는 ‘중고등학교’가

표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

N(%)

변수	N	%
Age		
Under 20	260	86.4
Over 20	41	13.6
Education		
Uneducation	5	1.7
Elementary	3	1.0
Middle school	70	23.3
High school	78	25.9
College<	145	48.2
Satisfactory of military life		
Satisfactory	66	21.9
Moderate	114	37.9
Dissatisfactory	121	40.2
Drink		
Yes	20	6.6
No	281	93.4

44.2%로 나타났으며, 흡연동기는 '스트레스 해소'가 41.5%로 높게 조사되었다. 담배연기처리는 '결코 들여마시지 않음'이 36.9%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금연경험은 62.5%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으며, 친한 동료의 흡연유무는 '예'가 62.5%로 조사되었다(표 2).

3.3. 일반적 특성과 흡연상태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상태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점을 실시한 결과, 흡연상태에서 일일흡연량과 흡연기간에서 니코틴 의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일일 흡연량에서는 '10개비 미만', '10-

표 2. Actual condition of respondents' smoking condition

	Item	N(=301)	%
Whether smoke or not	Smoker	227	75.4
	Non Smoker	74	24.6
Dependance on nicotine	Low	98	32.6
	Moderate	132	43.9
	High	71	23.6
No. of cigarette(/day)	Less than 10	127	42.2
	10 to 20	108	35.9
	More than 21	66	21.9
Smoking Period	Less than 2years	120	39.9
	2years to 4years	100	33.2
	4years to 6years	34	11.3
	6years to 8years	11	3.7
	More than 8years	36	12.0
Habitual smoking period	Elementary	86	28.6
	Middle and High school	133	44.2
	University	63	20.9
	Others	19	6.3
Motivation	Curiosity	108	35.9
	To get rid of stress	125	41.5
	With friends	25	8.3
	To be cool	34	11.3
	Others	9	3.0
Inhale the smoke	Never	111	36.9
	Sometimes	106	35.2
	Often	24	8.0
	Always	60	19.9
Ever stop smoke	Yes	113	37.5
	No	188	62.5
Whether colleagues smoke	Yes	156	51.8
	No	145	48.2

표 3. Dependency on nicotin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oking condition

Decisive factory	Item	Dependency on nicotine	p-value
Class	Private	1.94±0.68	0.381
	Private first class	1.88±0.75	
	Corporal	2.08±0.81	
	Sergeant	1.68±0.87	
Academic background	Under high school graduate	1.86±0.73	0.279
	Over undergraduate	1.95±0.75	
Satisfactory level	Satisfactory	1.72±0.73	0.075
with military life	Moderate	1.97±0.72	
	Unsatisfactory	1.95±0.76	
No of cigarettes	Less than 10 ^a	1.41±0.59	< 0.001**
	10 to 20 ^b	2.04±0.51	
	More than 21 ^c	2.63±0.62	
Smoking period	Less than 2years ^a	1.44±0.53	< 0.001**
	2years to 4years ^b	2.03±0.59	
	4years to 6years ^b	1.94±0.85	
	6years to 8years ^{bc}	2.45±0.52	
	More than 8years ^b	2.94±0.23	
Whether colleagues smoke	Yes	2.20±0.66	0.077
	No	1.81±0.74	

**p<0.001 by One way ANOVA or t-test.

^{a,b}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values with same superscript letter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05.

20개비', '21개비 이상' 각각 모든 군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흡연량이 많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000). 또한 흡연기간에서도 전반적으로 흡연기간이 길수록 니코틴의존도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 .000).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군생활 만족도가 '보통'에서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고, 친한동료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표 3>.

3.4.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흡연실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흡연실태 차이를 검정한 결과 구취유무에서는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흡연기간이 26.76개월 이었고, '없다' 는 25.32개월로 조사되어 구취가 있는 경우가 흡연기간이 조금 더 길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잇몸출혈유무에서도 출혈이 있는 경우, 흡연기간이 약간 더 길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4>.

3.5.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실천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강건강지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06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강건강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22점, 구강건강실천은 3점 만점에 평균 1.97점으로 조사되었다<표 5>.

표 4. Smoking condition by oral health condition

Decisive factor		Smoking period(/year)	p-value
Bad breath	Yes	2.23±1.39	0.509
	No	2.11±1.28	
Bleeding gums	Yes	2.27±1.32	0.286
	No	2.09±1.30	

표 5. Respondent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dental health

Decisive factor	M±D	Range
Knowledge on dental health	2.06±0.69	1.00-4.00
Attitude dental health	2.22±0.64	1.00-4.00
Practice dental health	1.97±0.52	1.00-3.00

3.6. 구강건강 중요성 인지 및 구강보건 교육 요구도

연구대상자의 전신건강 중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신건강의 '30-40%' 정도 차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8.9%), 연구대상자들의 구강보건교육 희망여부는 '희망한다'와 '희망하지 않는다'가 37.9%로 나타났고, 가장 교육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치아미백' 37.9%, '구취' 23.6%, '충치' 18.3%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강건강관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는 '충치'가 2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교정치료' 23.3%, '구취' 22.3%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

3.6. 니코틴 의존도와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실천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와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실천과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와 구강건강실천에서 (-0.145)로서 음(-)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 < .05$), 구강건강지식과 태도는

0.575, 구강건강실천과 태도 0.380, 구강건강실천과 지식은 0.294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p < 0.01$) (표 7).

4. 총괄 및 고안

국군병사들은 국가안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격오지, 낙도 등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¹¹⁾ 구강질환 발생시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연구는 일부 군인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구강지식을 함양시키고, 이러한 지식을 구강보건태도, 실천에 직결될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특성과 흡연실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실천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상관성을 분석하여 군의 구강건강관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흡연실태를 보면 본 연구는 흡연율이 75.4%로 조사되었으나 류⁴⁾등과 남¹²⁾의 42.0%와 66.4% 그리고 윤 등¹¹⁾ 60.0%보다 높게 조사되어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6. Respondents' recognition on importance of dental health care and demand on dental health care program

Decisive factor		N	%
Importance of dental health	Less than 10%	50	16.6
	10% to 20%	73	24.3
	30% to 40%	87	28.9
	50% to 60%	46	15.3
	More than 60%	45	15.0
Dental care program	Really want to have one	73	24.2
	want to have one	114	37.9
	Don't want to have one	114	37.9
Contents in program	Decayed teeth	55	18.3
	Gum smoking	23	7.6
	Whitening	114	37.9
	Bad breath	71	23.6
	Orthodontic treatment	23	7.6
	Others	15	5.0
Contents important of dental care	Decayed teeth	76	25.2
	Gum smoking	40	13.3
	Bad breath	67	22.3
	Orthodontic treatment	70	23.3
	Whitening	31	10.3
	Others	17	5.6
Periods in recall check	3 months	68	22.6
	6 months	101	33.6
	1 years	66	21.9
	2 years	66	21.9

표 7. Correlation between dependance on nicotine about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Decisive factor	Knowledge on dental health	Attitude dental health	Practice dental health	Dependency on nicotine
Knowledge on dental health	1			
Attitude dental health	0.575**	1		
Practice dental health	0.294**	0.380**	1	
Dependency on nicotine	-0.014	-0.009	-0.145*	1

*p<0.05, **p<0.01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하루 흡연량은 '10개비 이하'가 42.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남¹²⁾의 연구결과 '1-10개비' 하루 흡연량은 '10개비 이하'가 42.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남¹²⁾의 연구결과 '1-10개비' 53.5% 보다 적은 흡연량을 보였고, 류⁴⁾의 연구결과인 '10-20개비'의 44.9%보다도 적게 조사되

어 선행연구와 다소차이는 있었으나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금연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군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흡연기간은 '2년 미만' 과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이 각각 39.9%, 33.2%, 11.3%로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21.5세인 걸로 보면 흡연시작연령이 많게는 15세부터 18세 사이의 연령으로 중학교 1,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쯤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어 중고등학교시절 흡연에 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습관적인 흡연시기에 대해 44.2%가 '중고등학교' 라고 응답하였으며, 정⁹⁾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시기인 47.2%라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흡연시작동기는 '호기심' 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 이 35.9%, 41.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류⁴⁾등의 일부군인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와 정⁹⁾과 Cartwright A¹³⁾등의 결과인 부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과 호기심에서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친한 동료의 흡연유무에 대해 51.8%가 '예' 라고 응답하였고, 류⁴⁾등과 김¹⁴⁾과 Sterbel D¹⁵⁾등도 청소년 흡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흡연하는 친구를 지적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금연시도경험에서 본조사결과는 37.5%를 보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 흡연율에 비교해 상당히 부족한 수치임으로 해석된다.

일반적 특성 그리고 흡연실태와의 니코틴 의존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흡연기간과 흡연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흡연기간이 길어짐과 흡연량이 많은 대상자일수록 니코틴의존도가 높아짐을 설명할 수 있었고, 특히 사춘기 흡연이 성인에서 니코틴 의존성을 갖게 되는 요인¹⁶⁾이 됨으로 일단 흡연을 조기

에 시작한 청소년의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따른 금연은 쉽지 않기에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흡연실태를 살펴 보면, 구강내 구취가 '있다' 라고 응답한 군의 흡연기간이 구취가 '없다' 는 군보다 흡연기간이 조금 더 긴 기간(0.12)(/year)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p=0.509$). 하지만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구취자각율이 약간 더 높았던 양¹⁷⁾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흡연기간이 길수록 잇몸출혈에 대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p=0.286$). 이는 흡연이 잇몸질환을 유발하여 결국에는 치주질환을 발생시켜 치주질환 치료결과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17,18)}한 금연과 흡연 그리고 치주질환과의 관계도 함께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지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06점으로 절반에 미치는 점수를 보였고, 구강건강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22점으로 태도 또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고, 구강건강에 관한 실천 정도는 3점 만점에 평균 1.97점으로 태도와 지식에 비해 실천정도는 적극적임을 보였고, 선행연구는 윤 등¹⁰⁾의 연구인 지식 2.45점, 태도 2.61점, 실천 1.59점과 거의 유사하였고, 류⁴⁾의 연구인 3.37점, 3.26점, 1.83점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여 실천은 행해지지 않고, 단지 구강보건교육의 지식전달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에 비교해 본 연구는 실천점수가 높았던 걸로 보아 대상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내용이 전달되는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천점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니코틴 의존도에 대해서는 '높음' 이 23.6%로 나타났고, 하¹⁹⁾의 연구의 18.0%보다 높게 나타나 흡연기간이 오래될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니코틴 의존도와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실천과의 상관분석

결과 구강건강지식과 태도는 0.575, 구강건강태도와 실천은 0.380, 구강건강실천과 니코틴 의존도는 (-)의 값인 0.145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니코틴의존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실천이 낮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군내에서의 구강보건이 정립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어 태도와 실천이 뒷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 중요성 인지 및 구강건강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전체 건강 중 구강건강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30%~40%라고 응답한 비율이 28.9%, 다음이 10~20%이었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희망한다'와 '희망하지 않는다'가 각각 37.9%로 매우 낮았고, 류⁴⁾의 연구에서는 84.6%로 높게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여 군내의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의 요구도가 낮아 구강건강관리 또한 소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과 신의 연구²⁰⁾에서 구강보건관련내용에 관한 분석연구에서 근로자들은 치아우식증 예방법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학교교육에서 교육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럭키²¹⁾의 한국인의 구강보건행동 및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2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1.3%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치아와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구강보건의식, 태도 및 실천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계획적인 구강보건의교육을 통한 장병들의 올바른 구강위생관리 습득이야말로 2080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장 교육받고 싶은 내용은 '치아미백' 37.9%, '구취' 23.6%순으로 나타났고, 구강건강관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는 '충치' 25.2%, '금연' 23.2%순으로 조사되어 구강건강에서 중대 구강질환인 우식치료와 더불어 요즘 입상에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심미적인 관점

에서 중시되는 치아미백 그리고 구취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흡연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군장병들에게는 구강 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연조직 질환의 유발이나 경조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구강내 질환의 치유과정에 대한 지연 등을 보여 금연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상기되어야 하겠다.

군내 구강보건의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확산되어 구강보건의 프로그램과 치과위생사의 부사관 증원 및 역할의 표준화를 정립시키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구강보건의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각 부대의 환경에 적절한 구강보건의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였으며, 또한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방법론적 제한점과 단면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함에 이해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군인들의 흡연실태와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실천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전투부대 2곳의 군인장병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301부 설문지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흡연시작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였으며, 흡연은 친한친구의 흡연유무와 연관성이 있었다. 흡연량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는 '10개비 미만'과 '10~20개비', '21개비 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0.001), 흡연기간과도 유의한 차이($p < 0.001$)를 보여, 흡연량이 많고 흡연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구취와 잇몸출혈의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흡연기간이 오래 되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신건강의 '30-40%' 정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강보건교육 희망여부는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가 37.9%로 나타났고, 가장 교육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치아미백', '구취' 37.9%, 23.6%이었으며, 구강건강관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는 '충치'가 25.2%, '교정치료'가 23.3%로 조사되었다.
4. 니코틴 의존도가 구강건강실천에서의 상관계수는 -0.145 로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 수록 구강건강실천, 태도 및 행동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참고문헌

1. Tones K. Why theories: ideology in health education. *J Health Education* 1990;49:1.
2. 박한정. 군 요통환자의 건강개념 및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3. 김일순.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1978;30(8):825-830.
4. 류정숙, 김기은, 김진. 일부 군인의 흡연실태와 구강건강지식의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9;33(3):356-366.
5. 건강길라잡이. Health Guide, 통계DB검색, 건강한 생활. [online] <http://www.hp.go.kr/>. 검색일자 2008.3.30.
6. 대한보건협회. 청소년 흡연과 건강. *건강생활* 2000년 5월호 2000:6-17.
7. 의료보험조합.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문고*;2000;10(1):1-2.
8. 이영숙.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9. 정상조. 일부 군 장병들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조선대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0. 이동윤. 특정집단의 건강관리체계 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1. 윤준호, 이무식, 나백주, 김건엽, 홍지영, 강문영 외 2인. 일부 국군병사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31(1):86-96.
12. 남창국. 우리나라 육군 장병들의 흡연 행태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3. Cartwright A, Martin FM, Thompson JG.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of Smoking habits, *Lancet* 2:1959:725-727.
14. 김기순, 김양옥, 박종, 최진수. 일부 신입생들의 흡연관련요인. *대한보건협회지* 1994;20(1):3-14.
15. Sterbel D, Kuhn L, Yach D. Determinants of cigarette smoking in the black township population of Cape town. *J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1989;43:209-213.
16. Russel MA. The nicotine addition trap:a 40-year sentence for four cigarettes. *Br J Addict* 1990;85(2):293-300.
17. 양진영, 박경숙. 흡연이 구강환경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2001;1(1):67-73.
18. 황영혜. 흡연이 치태 및 치은염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9. 하형호, 이숙희, 최현님, 안형철. 우리나라 청년 군인의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 *가정의학회지* 1994;15(11):961.
20. 정성철, 신승철. 초등학교 내용에 관한 조사 분석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0;14(2):269-295.
21. 주식회사 럭키. 한국인의 구강보건 행동 및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제 2차 조사 보고서. (주)럭키. 1991.

Abstract

A Study on actual smoking conditi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dental health of korean soldiers

Mee-Jin Jeon, Sun-Hee Hwang¹

Dept. of Oral Health,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Gwangju

¹Dept. of Dental Hygiene, Shingu University

Key words : Attitude dental health, knowledge on dental health, practice dental health, soldier, smoking

Objectives : The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the between smoking and the actual smoking conditi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n the dental health of korean soldiers.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given to 301 soldiers at two separate units in Kangwon-DO.

Results : Soldiers dependance on nicotine according to the smoking freque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p < 0.001$). The respondents who had bad breath and bleeding gum had smoked for a relative correlation with how long they had smoked. Among the content of the dental health care program that respondents wished to undergo, dental whitening was the most attractive topic(37.9%) and decayed teeth was the most important part in dental health care(25.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dependancy on nicotine the less effort they made to improve their dental health($p < .05$).

Conclusion : The study suggest that antismoking campaigns should be include in military dental health care program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dental health care programs considering the needs of each military unit is basic for practice on dental health care between Korean soldiers.